

조선대병원 ‘자원봉사자 힐링 나들이’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최근 순천 송광사에서 환자들의 손발 역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봉사자들의 단합과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힐링 나들이’를 가졌다. <조선대병원 제공>

한국장학재단 ‘지구별 꿈 도전단’ 해단식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최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2개월 간 전 세계에서 꿈을 실현하고 온 18개팀, 64명 젊은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5기 지구별 꿈 도전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동강대-광주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협약



동강대(총장 김동욱)는 최근 본관 원형홀에서 광주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체결, 학생·교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자문, 교육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동강대 제공>

목포대-완도고 과학교류 협약 체결



목포대(총장 최일)는 최근 자연과학대 세미나실에서 자연과학대학과 완도고(교장 양병주)간 과학 교육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

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글로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

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족지원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옹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협·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동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부음

▲유채종씨 별세 유영일·영도·영빈·승지·안순·안숙·안희·현 부친상 최옥자·홍정혜·김소연·나지영 시부상 이철현·강호균·문명순·박춘수 방부상 발인 3일(토) 오전 8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062-220-3352, 3353.

“사라져가는 모성 회복 시급 … 자연에서 찾아야”

농사 지으며 시를 ‘짓는’ 보성 농부시인 송만철씨

“오래 전부터 자연과 환경, 생태 문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흙은 생존경쟁에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해주거든요.”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시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보성에서 농사를 짓는 송만철(59) 시인.
그는 오래 전 교직 생활을 접고 자연으로 돌아와 자급자족의 삶을 산다. “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사는 삶이 좋다”는 그는 틈틈이 시도 쓴다. ‘불교문에’ 신인상을 받고 두 권의 시집을 낼 만큼 만만찮은 필력의 소유자다.
이번에 펴낸 세 번째 시집 ‘엄니’(문학들)는 농경문화로 대변되는 삶의 정서를 담아낸다. 전라도 방언인 ‘엄니’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과 삶에 대한 태도, 지향 등이 투사돼 있다.
“지난 5월 병중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 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가슴 한켠이 찢히더군요. 그동안 써두었던 시를 갈무리하는 마음으로 작품집을 펴내게 됐습 니다.”
한마디로 시집은 어머니에게 드리는 헌사

수도권서 교직 생활하다 귀촌

틈틈이 시 써 ‘불교문에’ 신인상

세번째 시집 ‘엄니’ 출간 눈길

다.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대변되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사모곡이기도 하다.
고흥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다. 초·중·고교를 고흥 과역에서 다니고 대학은 중앙대 사범대 체육학과로 진학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경기도 안양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틈에 얹매인 도시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뿌리내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얼마 후 귀촌을 결심하게 된다. 고흥이 고향인 아내도 가까이 그의 제안을 따랐다.
“고흥으로 내려왔는데 얼마 후 학교가 폐교됐어요. 이후 보성으로 옮겨 그곳에서 교직생



활을 마쳤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공부를 강요하거나 자신

이 세워둔 계획 속에 가두지 않았다. “과연 학교 교육에 진정한 배움이 있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면서 “교과서, 시험, 지도라는 말로 대변되는 학교 교육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교만 졸업하고 자연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방목’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번 시집에는 자연으로 대변되는 ‘엄니’와 맞물린 시편들이 적지 않다. “엄니는 돌아간 신 아버지를 대신해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말에서 지난한 삶이 가늠된다. 그 뿐 아니라 “자반고등어같이 절여진 생(生)의 좌판”을 펼쳐놓은 그의 어머니의 눈빛도 읽혀진다.
두박한 전라도 방언들로 형성된 시집은 생생한 삶의 풍경을 펼쳐낸다. “전라도 사투리 자체가 모성”이라는 말에서 시인이 왜 농사를 짓고 시를 ‘짓는지’ 이해가 된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는 생태의 회복입니다.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복원하는 일이 바로 모성이며, 모든 이들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MBC 라디오 ‘말바우 아집’ 연출 장영주씨 한국방송대상

지역방송진흥부문 수상

광주 MBC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 ‘말바우 아집’을 연출한 장영주(61) 전 광주 MBC 국장이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제43회 한국방송대상을 받는다.
“지역방송진흥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장씨는 광주MBC에서 30여 년 동안 라디오 프로듀서로 제작하면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한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특히 지역방송 라디오 다큐멘터리에 한 획을 그은 10부작 ‘남도소리여행’을 비롯한 징·북·팽과리·장고의 과학적인 소리분석을 통해 사물의 신비한 어울림을 조명한 ‘사물놀이 그 어울림의 비밀’ 4부작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또한, 광주 말바우시장에서 장사하는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민을 대변했던 ‘말바우 아집’은 그의 대표작이다.
이밖에 ‘5월 광주, 그리고 언론’(1998), ‘5·18



야전병원’(1999) 등 5·18 특집다큐멘터리 9편을 제작, 5·18 재조명에 앞장섰으며,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영호남 한마당 화해장터’(1999), ‘아름다운 남도 아시아로 세계로’(2002) 등도 제작했다.
그는 2013년 광주MBC 정년퇴임 후 최근까지 광주교통방송 본부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육교 철거, 정지선 개선, 횡단보도 신설 등 캠페인을 전개,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방송대상을 4차례 수상하는 등 모두 15차례 방송 관련 주요 상을 받았다.
광주전남언론학회 산학이시,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지역방송정책론’(공저)이 있다. 시상식은 2일 오후 3시KBS1 TV를 통해 전국 생중계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트남 반전시위 ‘꽃을 든 여인’ 사진작가 리부 별세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을 남긴 프랑스 사진작가 마르크 리부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리부의 유족은 그가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AFP통신에 31일 밝혔다. 1923년 프랑스 리옹 부근 명문가에서 태어난 리부는 14살에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코닥 카메라로 사진에 첫발을 디뎠다.
그는 1952년 파리에서 보도사진작가그룹 매그넘의 두 창립자인 앙리-카르티에 브레송과 로버트 카피라를 만나 이듬해 매그넘에 합류했다.



그의 작품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에펠탑의 페인트공’과 ‘꽃을 든 여인’을 꼽을 수 있다.
“꽃을 든 여인”은 1967년 베트남 반전평화시위가 벌어지던 미국 워싱턴 거리에서 한 여성이 총검을 거는 군인들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당시 미국과 세계를 뒤흔든 반전 메시지를 포착하고 있다.
/연합뉴스